

2011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종훈 선생

3월

공훈선양학술강연회

광 주 시
광복회 광주·하남연합지회

진행순서

1부 개회식

- 개회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1절)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故 이종훈 선생에 대한 묵념
- 인사말씀 광복회 광주·하남연합지회장
- 축사 광주시장, 의장
- 유족대표 인사

2부 학술강연회

- 특강
 - 주 제 : 정암 이종훈의 생애와 민족운동
 - 강 연 : 성주현 교수(경기대 사학과 교수)
- 폐회
- 기념사진 촬영

3월의 독립운동가

정암 이종훈 선생

주제 : 정암 이종훈의 생애와 민족정신

성 주 현
(경기대 사학과 교수)

정암 이종훈의 생애와 민족운동

성 주 현 (문학박사, 경기대 사학과)

1. 머리말
2. 출생과 동학 입도
3.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혁명 참가
4. 33인 민족대표로 3.1운동 참여
5. 천도교 혁신운동과 비밀결사 참여
6. 맺음말

1. 머리말

올해는 3.1운동을 전개한 지 92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마다 3월 1일이면 만세소리가 컷가를 쟁쟁하게 울리지만 올해는 유난히 그 울림소리가 크게 느껴진다. 이는 아마도 올해 3.1절이 정암 이종훈 선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그리고 광복회에서 금년 3월의 독립운동가를 정암 이종훈으로 선정하였다. 매달 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3월은 3.1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데, 이제야 이종훈이 선정되었다.

정암 이종훈은 서세동점의 시기에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관계로 진출하고자 하였으나 부패하고 혼란한 정치현실을 보고 모순된 구제도를 혁신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동학에 입도하여 보은 최외양장의운동을 비롯하여 반봉건 반침략의 기치를 내세운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다. 이후 천도교의 핵심인물로 활동하였다. 1919년 들어 만세운동을 준비하자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명하였다. 그 댓가로 3년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석방 후에는 천도교와 형평사, 그리고 만주지역에 활동하던 독립운동단체 정의부가 연합전선으로 조직한 고려혁명당에 참여하여 민족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종훈 일가는 3대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종훈의 아들 이관영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인 의암 손병희의 사위로서 일본에 유학하였다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귀국하여 이완용을 처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패하고 양평 등지에서 의병운동을 전개하다 순국한 바 있다. 그리고 손자인 이태운은 3.1운동 당시 방정환과 함께 독립신문을 발행하였으며, 이후 언론인으로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데 헌신하였다.

정암 이종훈은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1893년 동학에 입도하여 동학혁명, 3.1운동, 그리고 고려혁명당 등 민족운동가로, 그리고 천도교의 지도자로서 활동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활동에 비해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마도 이종훈과 관련된 자료가 평가할 만큼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금년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광복회가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하여 본고에서는 이종훈의 생애와 민족운동, 그리고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출생과 동학 입도

정암 이종훈은 1856년(丙辰) 2월 19일(음)¹⁾에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유여리(京畿道 廣州郡 實村面 柳餘里)에서 출생하였다.²⁾ 아버지 이상재(李尙載)와 어머니 칠원윤씨의 삼형제 중 둘째이다. 본관은 광주(廣州), 처음 이름은 종옥(鍾玉), 자는 경측(敬測)이며, 천도교의 도호는 정암(正菴)이다. 그가 태어난 유여리는 한강으로 흐르는 경안천의 지류인 끈지암천이 마을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많아 버드나무골로 불리다가 '버드라리(柳餘里)'라고 하였다. 그런데 유여리는 1915년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웃의 절골(寺洞)과 합하여 유사리(柳寺里)가 되었다.

이종훈이 태어난 시기는 밖으로는 서세동점, 안으로는 봉건체제가 무너지는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다. 또한 그가 태어난 지 4년 후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이 경주에서 창도되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는 이종훈으로 하여금 격랑의 삶을 겪는 시대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종훈의 성품은 '천성은유인자 재아희(天性溫柔仁慈 在兒嬉)'라 하여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질고 자애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은유하고 인자하였다. 또한 언행일치(言行一致)와 대인접물(待人接物)에 철저하여 종교가다운 모습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일에 처하여도 여유가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³⁾ 또한 그는 "본래 성정이 강직하여 한번 굳게 정한 뜻이라면 변한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강직하였다.⁴⁾

이종훈은 어려서 글 잘하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10세 때부터 14세가 될 때까지 한학을 배웠다. 그러나 학문을 계속하기보다는 상업에 종사하였다.⁵⁾ 21세부터 37세까지 17년간 철점을 운영하면서도 관계로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부정부패가 극심했던 왕조 말기적 현상만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과거제도의 모순과 탐관오리만 양산되는 사회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만 가득하였다. 이에 이종훈은 관계로 나가는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이종훈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때는 1893년이였다. 이 시기 동학은 사회변혁을 지향하던 때였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왔던 동학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1892년 공주와 삼례에서 두 차례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동학교단은 1893년 들어 광화문 앞에서 다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더욱이 광화문 교조신원운동을 겪으면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목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동학교단은 이해 3월 10일 충북 보은 장내리에서 '척왜양창의운동'을 전개하면서 반외세 반제국의 기치를 내걸었다. 성리학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동학은 이 시기 새로운 사회질서를 위해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하는 사회변혁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던 이종훈은 광화문교조신원운동이 끝난 직후인 1893년 1월 17일 동학에 입도하였다.⁶⁾ 이종훈이 동학에 입도한 배경은 동학의 사상 즉

1) 『광주이씨대동보』(권13)에 의하면, 1856년 2월 20일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천도교 장로 이종훈씨 약력」, 『천도교회월보』 69, 1916.4, 40쪽;야외, 「정암은 돌아가셨나」, 『천도교회월보』 245, 1931.5, 40쪽.

3) 「천도교 장로 이종훈씨 약력」, 『천도교회월보』 69, 40쪽.

4) 「33인의 1인」, 『동아일보』 1921년 5월 3일자.

5) 「천도교 장로 이종훈씨 약력」, 『천도교회월보』 69, 40쪽;야외, 「정암은 돌아가셨나」, 『천도교회월보』 245, 40쪽.

천주의 평등사상, 척양척왜의 민족주체사상, 유무상자의 평등사상, 후천개벽의 혁세사상에 공감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동학의 사회변혁사상이 그로 하여금 동학에 입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종훈 역시 철점을 운영하면서 동학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를 접하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동학에 입도한 이종훈은 우선 고향인 광주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광주뿐만 아니라 지평, 여주, 이천, 충주, 음죽, 안성 등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까지 포교하였다. 이러한 그의 포교활동으로 이종훈은 동학혁명 당시 광주에서 기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손병희의 핵심적인 참모역을 맡게 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이어 광화문에서 전개된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였거나 참관하였을 것으로 본다. 광화문교조신원운동은 1893년 2월 8일 전개되었는데, 이종훈이 동학에 입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더욱이 그가 활동하던 지역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참관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종훈은 동학에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핵심지도부로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는 핵심지도부 외에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참여하였는데, 멀리 지방에 있는 교인보다는 서울 인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수원지역 동학교인들이었다. 이종훈 역시 핵심지도부는 아니었지만 일반 교인으로 참여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한 동학교단은 이해 3월 10일 충북 보은군 장내리에서 척왜양의 기치를 내세우고 대규모의 시위를 개최하였다.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는 전국 각지의 동학교인들이 집결하였는데, 이종훈도 광주지역 동학교인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취어』에 의하면, 크고 작은 깃발을 내세워 참가한 지역을 표기하였는데, 광주지역 동학교인들은 ‘광의(廣義)’라고 표기한 깃발을 걸었다.⁷⁾ 또한 “광주 사람 수백 명이 돈 네 바리를 실어왔다”⁸⁾라고 하여 의연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서 광주지역 동학교인들을 지도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종훈이다. 「천도교 장로 이종훈씨 약력」에 따르면 “(癸巳) 三月 報恩帳內都會時 捐馬二頭 金八百”⁹⁾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종훈이 말 두 필과 8백 냥을 의연한 것으로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서의 역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종훈은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을 통해 동학교단의 핵심지도부로 성장하게 되었다.

3.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혁명 참가

1894년 1월 10일 정읍 고부에서 첫 기포를 한 동학군은 3월 20일 무장기포, 3월 25일 백산대회, 5월 11일 황토현전투를 거쳐 5월 30일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조선정부와 화약을 체결한 동학군은 호남지역 각군에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 민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해 8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동학군은 반외세 반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총기포를 하였다. 9월 18일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에 따라 호남지역 동학군은 전주 삼례에서, 경기도와 호서지역 동학군은 각지에서 기포한 후 보은 장내로 향하였다. 광

6) 야퇴, 「정암은 돌아가셨나」, 『천도교회월보』, 245, 40쪽. 그런데 「천도교 장로 이종훈씨 약력」에는 “癸巳春二月十二日 立于教”라 하여 1893년 춘 2월 12일에 입도하였다고 하였다.

7) 「취어」,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22쪽.

8) 「취어」,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37쪽.

9) 「천도교 장로 이종훈씨 약력」, 『천도교회월보』, 69, 40쪽.

주 일대를 관할하던 이종훈은 곧바로 기포를 준비하였다. 권병덕의 『갑오동학란』에는 이종훈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종훈, 이용구는 각처에 두령을 연락하여 일어나니, 흥병기 신수집 임학선은 여주에서, 홍재길 신재련은 충주에서, 임명준 정경수는 안성에서, 고재당은 양지에서, 이근풍 전규석 전일진은 이천에서, 신재연은 양근에서, 김태열 이재연은 지평에서, 염세환은 광주에서, 이화경 임순호는 원주에서, 윤면호는 횡성에서, 심상현 오창섭은 홍천에서 일어나서 모두 충주 황산으로 회집하니 회중이 수십만 인에 달하고¹⁰⁾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을 전달받은 이종훈은 자신의 관할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와 여주, 양지, 지평, 이천 등지에 함께 기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권유에 따라 경기도 서남부지역의 동학군은 일제히 기포하였다. 이때 기포한 동학군은 이종훈의 지도 아래 충주 외서촌 황산에 집결한 동학군에 합류하였다.¹¹⁾ 황산에는 이종훈이 이끄는 동학군 외에 이용구의 충청도 북서부지역과 강원도 남서부지역 동학군이 집결하였다.

황산에 동학군이 집결하자 정부에서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선유사 정경원을 파견하였다. 정경원은 포군 5백여 명을 이끌고 충주 사창리에 머물렀다. 황산과 사창리는 불과 1리 정도였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종훈은 이용구와 함께 정경원을 만나 담판을 시도하였다. 이종훈과 이용구는 “동일한 신민으로써 국사 급업(戡業)의 때를 당하여 자상상해(自相狀害)함이 만부타당(萬不汗妥當)한 의(意)”를 설명하였다. 이에 정경원은 이를 수용하고 군사를 물린 후 10리 밖으로 퇴각하였다.¹²⁾ 이와 같은 이종훈의 적극적인 활동은 그로 하여금 동학혁명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황산에서 10여 일 묵은 동학군은 다음 집결지인 보은 장내로 가던 중 괴산관아를 점령하였다. 10월 6일 보은을 목표로 남하하던 이종훈이 이끄는 동학군의 첫 목표는 보은으로 가는 길목의 괴산관아였다. 이종훈은 괴산관아를 점령하기 위해 청천에 모여있던 동학군과 연합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당시 청천에는 괴산과 청주지역의 동학군이 집결해 있었다. 괴산관아를 점령하려는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괴산관아에서 동학접주를 처형한 것에 대한 보복이고, 다른 하나는 무기와 식량의 확보였다. 괴산지역 동학군은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가 있기 전 무기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괴산관아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이에 괴산관아는 동학접주 백창수와 우제관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¹³⁾

괴산에서 동학접주가 처형당하자 이종훈이 이끄는 동학군과 청산의 동학군이 연합하여 괴산관아 점령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정보를 입수한 가흥병참부는 10월 2일 原田常八 소위의 지휘 아래 일본군 27명을 출동시켜 괴산에서 동학군의 동향을 정탐하였다. 별다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일본군은 동학군이 주둔하고 있던 당동까지 척후병을 보냈다. 읍내에서 15리 정도 떨어져 있던 애재에 머물고 있던 동학군은 일본군과 조우, 전투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전투상황은 다음과 같다.

10) 권병덕, 「갑오동학란」; 신영우, 「군암장 임동호씨 약력」,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한국사연구회, 2010, 84쪽에서 재인용.

11) 「군암 임동호씨 약력」. 임동호는 충주 무극장터에 집결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황산에 집결하였다. 황산은 보은 최외양창의운동에서 총의대접주로 추대된 손병희의 부하 이용구의 근거지였다. 해월 최시형이 총기포령을 내리자 경기지역과 충청도 북부지역 동학군은 황산에서 1차 집결하였다. 그렇지만 『순무선봉진동록』에는 ‘동학군이 무극장터에 모였다’고 보고하였다.

12) 『천도교회사초고』, 포덕 35년조; 『천도교사부총서』,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 1962, 61쪽.

13) 『순무선봉진동록』, 갑오 11월 15일조;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위원회, 2007, 184쪽.

11월 2일 괴산 지방에서 동학당이 봉기해서 괴산군수를 공격하려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므로 같은 날 오전 10시 4분 충주를 출발, 오후 7시 30분 괴산에 도착하여 그곳의 정세를 탐색했다. 그날 밤은 이렇다 할만한 일이 없었다. 다음 날 3일 오전 8시부터 一等軍曹 田島武臣·上等兵 宇佐美久次郎 2명에게 조선인 복장을 시켜 척후병으로 唐洞(동학당 근거지) 쪽으로 가게 했더니, 괴산으로부터 15리인 곳에서 적을 만났다고 급보해 왔다. 그래서 原田 少尉가 부하 병졸을 이끌고 그곳으로 출장, 장교 이하 27명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原田 少尉가 지휘하여 정면을 맡고, 또 하나는 田島 軍曹가 지휘하여 좌측을 우회하여 중간부를 쳤다. 적 진영은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쌍방이 모두 좋은 성과를 올렸지만 아무래도 동학도의 인원이 3만 정도나 되어 도저히 지탱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의 탄약이 금방 고갈 되려 하므로, 노획한 물품에 불을 지르고 일시 괴산으로 철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동학도가 전투를 벌임과 동시에 셋길로 괴산에 들어와 불을 질러 연기와 불길이 충천하였다. 적은 무리가 많은 것을 의지하여 괴산을 지키고 우리 부대는 사면을 적에게 둘러싸였지만 한 쪽의 血路를 열어 같은 날 4일 오후 3시 15분 충주까지 철수하였다.

우리 병사 즉사자는 上等兵 酒向芳五郎 1명, 부상자 原因 少尉의 3명, 적의 사상자는 200여 명이었다. 우리 부대 부상자는 可興에 입원시켰지만 중상자는 없었다. 전투는 오전 11시 30분에 개시해서 오후 4시 30분에 끝났다. 적군은 어제 저녁 괴산 지방에서 野營하고 오늘 이곳 兵站部를 습격할 염려가 있으므로 척후를 내서 가흥에 원병을 청했다.¹⁴⁾

이종훈과 이용구가 이끄는 동학군은 괴산관아를 점거하기 위해 애재¹⁵⁾에 머물고 있었는데, 정찰 중이던 일본군과 만나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충주로 퇴각하였다. 동학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 1백 명 또는 2백 명이었다.¹⁶⁾

일본군을 격퇴한 동학군은 곧바로 괴산관아를 점령하였다. 괴산군수가 보고한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0월 초 6일에 이르러 동학군 수만 명이 양쪽 길로 나누어 경내에 어지럽게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일본병사 25명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온 동학군들은 일본병사를 보고 대적하였고, 남쪽에서 온 동학군은 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대적하니 (동학군이) 많고 읍의 사람이 적어서 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 싸움이 불리하고 북쪽에서도 또한 패하여 일본 병사 1명이 죽고 읍의 관속 및 부락민 중에 죽은 자가 11명이나 됩니다. 창에 맞은 중상자가 30여 명이고 읍 아래 5개 동네의 민가가 불에 맞는데 탄 집이 모두 5백여 호가 되었습니다. 관아의 각 건물도 모두 부서지고 오직 객사만 우뚝 남았습니다. 무기 집기 문부 등이 모두 불에 탔고 환곡 40석 공전 8천여 금을 잃었습니다.¹⁷⁾

14) 「충청도 동학당 토벌경황 및 전황보고 사본 송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220-221쪽. 이외에도 일본군과 전투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1월 1일자 동학당에 관한 보고와 귀관이 귀경하고 싶다는 전갈의 취지는 모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原田 少尉가 2개 分隊를 인솔하고 충주에서 槐山地方까지 정찰하던 중 적군 약 2만 명을 만나 격전을 벌이다 겨우 다음날 4일 오전 6시에 충주로 돌아왔고, 原田 少尉 이하 4명이 부상, 병사 1명이 즉사했다”

“11월 2일밤 原田 少尉 이하가 槐山郡衙門에서 묵었다. 같은 달 3일 오전 7시 그 지방 사람의 보고에 따르면, 동학당 수만 명이 陰竹 방향에서 그곳 괴산으로 내습하려 한다고 하였다. 一等軍曹 田島武臣·上等兵 宇佐美久三郎(조선인 복장을 시켜서)·조선인 巡查 孫鶴聲을 음죽 가도에 있는 唐洞에 척후로 파견했는데, 오전 9시 30분 과연 우세한 賊黨들이 내습한다는 확실한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곧 下士官 이하는 가벼운 차림을 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한데 묶어 郡守衙門 안에 남겨두고 唐洞 東南方의 좁은 길목을 지킬 목적으로 급히 나갔다. 오전 11시 30분 괴산에서 약 6km에 있는 이름 모를 그 가도상의 촌락에서 적과 조우하여 싸움이 벌어졌다. 그런데 적의 일부는 정반대 방향, 즉 報恩 街道로부터 약 3만 명이 괴산으로 침입하여 그 촌락의 민가에 방화하였다. 이 때문에 남겨두었던 물품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15) 애재는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에 있는 작은 고개로 ‘아재’라고도 불렀다.

16)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체포한 동학군 林命根(충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명근은 동학군 1백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7) 『순무선봉진동록』, 갑오 11월 15일조;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184-185쪽.

괴산관아를 점령한 동학군은 객사를 제외한 모든 건물과 서류를 불태웠다. 뿐만 아니라 민가 5백여 호가 불에 타는 피해도 있었다. 특히 민가가 불에 탄 것은 괴산접주 서모가 괴산군민들에게 타살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서접주의 13세된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로 민가에 불을 지른 것이다.¹⁸⁾

괴산관아를 점령한 동학군은 무기와 식량을 확보한 후 청주·청천¹⁹⁾으로 향하였다. 이곳에서 손병희 등과 합류한 후 보은 장내에 도착하였다. 보은 장내에 집결한 경기지역과 호서지역 동학군은 손병희를 정점으로 대오를 정비하였는데, 이종훈은 좌익(左翼)²⁰⁾을 맡아 호남지역 동학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논산으로 출발하였다. 논산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한 동학군은 공주를 점령하기 위해 우금치 일대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부대와 10여 차례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때 이종훈은 손병희의 좌선봉으로 우금치 전투에 참가하여 생사를 같이 하였다.²¹⁾ 그러나 일제의 우수한 화력에 동학군은 패배하였다. 이후 동학군은 경천-논산-여산-익산-전주-원평-태인-고부 백산-정읍-장성으로 퇴각하였다.²²⁾ 이 퇴각과정에서 이종훈이 함께 하였고, 원평과 태인에서 관군과 소규모의 전투를 치렀다.

장성에서 전봉준의 호남지역 동학군과 결별한 호서지역 동학군은 의암 손병희와 이종훈의 지휘 아래 무주-임실-영동 용산-청산-보은으로 북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종훈이 지휘하는 동학군은 영동 용산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청산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의 계속된 추격에 동학군은 보은 북실에서 대규모의 전투를 하였지만²³⁾ 결국 대패하고 음성 되자니까지 후퇴하였다. 그러나 음성 되자니에서도 관군에 동학군이 패하자 의암 손병희는 그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하였던 동학군을 해산하였다. 이때까지 이종훈도 함께 생사고락을 하였다. 이후 이종훈은 동학의 최고책임자인 해월 최시형을 보필하였다. 특히 해월 최시형이 1898년 체포되어 서소문감옥에 있을 때 모은 옥바라지를 도맡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시신을 수습²⁴⁾하여 경기도 광주군 송파에 안장하였다.²⁵⁾

4. 33인 민족대표로 3.1운동 참여

동학혁명의 실패와 스승으로 모셨던 해월 최시형의 죽음은 이종훈으로 하여금 종교적 신념을 보다 철저하게 심화시켰다. 최시형을 무사히 안장한 이종훈은 1889년 8월 쌀 4두를 마련하여 흥천군 수유산에서 백일기도에 몰입하였다. 이후 종교 활동에 전념하던 이종훈은 1904년 들어 문명개화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동학교단을 책임지고 있던 손병희는 관의 체포령을 피해 일본에 망명 중이었다. 손병희는 근대화된 일본의 현실을 목도하고 조선에서 문명개화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904년 2월 손병희는 국내의 이종훈,

18) 『천도교회사초고』, 포덕 35년조; 『천도교사부총서』,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 1962, 61쪽.

19) 일부 기록에는 '청주 쌍교시'로 기록하고 있다.

20)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제2편 66쪽.

21) 「균암 임동호씨 약력」.

22) 「균암 임동호씨 약력」.

23) 신영우, 「동학농민전쟁기 보은 일대와 북실전투」, 『보은 종곡 동학유적』,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3.

24) 이종훈은 해월 최시형의 시신 수습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초통과 우산을 김준식에게 들리고 상여군 두 사람을 데리고 시체를 파내는데 일꾼들은 시체를 손에 대이기가 싫어서 흙 파는 팽이로 떠들추려 한다. “아 안돼! 안돼! 아무리 남의 시체이기로 우리들이 돈 받고 하여주는 일인데 그래서는 못쓴다. 너희 두 사람이 하체를 들라. 내 상체를 들 터이니” 하고 무덤 속에서 시체를 땅위에다 깎아서 내어 모셔놓고 본즉 몸에는 아주 못쓰게 된 현요 한 겹이 감겨 있을 뿐이다.”

25) 일연, 「해월신사의 수형전후 실기」, 『신인간』, 14, 1927.7, 6-13쪽.

박인호, 홍병기 등 40여 명을 일본으로 불러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²⁶⁾ 이러한 취지에 따라 동학교단은 대동회(大同會)를 비밀리에 조직하였다. 이어 4월에 박인호와 홍병기를 일본으로 다시 불러 '흑의단발'토록 하였다. 이는 '세계문명에의 참여와 단결을 통한 회원 심지의 일치'때문이었다. 개화된 근대문명을 수용하고 동학혁명 이후 해이해졌던 교인들의 마음을 다지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에 따라 7월에 이종훈을 비롯하여 박인호, 홍병기 등과 모화관 산방에 모여 대동회를 중립회로 회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중립회가 동학세력임을 간파한 정부는 동학을 다시금 탄압하였다. 중립회 조직이 여의치 않자 손병희는 회명을 진보회로 다시 개명하였다. 동학교인은 전국 각지에서 진보회를 조직하고 흑의단발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으로 동학교인들의 희생이 늘어나자 진보회를 이끌던 이용구는 송병준과 윤시병 등이 조직한 일진회와 통합하였다. 더욱이 일진회의 친일행위로 동학교단이 친일종교로 지탄을 받음에 따라 손병희는 1905년 12월 24일 동학을 천도교로 전환하였다. 천도교로의 전환은 근대적 종교로서의 틀을 갖추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손병희는 '퇴회신교'를 명분으로 동학교인들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천도교로 귀의하기를 권고하였다. 권력욕에 지향하였던 인물들은 비록 친일이라도 일진회에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의 동학교인들은 천도교로 돌아왔다. 이종훈 역시 천도교에 귀의하였다. 손병희는 1906년 2월 26일 천도교중앙총부를 조직하고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천도교 중앙총부 조직 당시 都執으로 선임된²⁷⁾ 이종훈은 이후 현기사 고문과원, 서용관장, 현기사장, 고문, 천주, 현기사 해양과원, 성도사, 직무도사장, 대총사장, 장로 등의 주요 원주직을 맡아 종교인으로 활동하였다.²⁸⁾

1910년 8월 29일 일제강점 직후 친일단체였던 일진회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단체들이 해산을 당하였고, 그나마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은 종교단체였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천도교는 일제강점 직후 일제의 침략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각국 공사관에 발송한 바 있었다.²⁹⁾ 이 사건으로 인해 천도교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비밀결사가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였다.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는 1912년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과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보성사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912년 들어 이종일, 이종훈, 임예환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적지 않기 때문에 농어민을 포섭하여 민중운동을 전개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이종훈과 임예환은 농민과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³⁰⁾ 일제는 강점 직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 농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뒤따르던 상황이었다. 이종훈이 20여 일 동안 농민의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농민의 80%가 배일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종훈은 우선 경기지방의 농민을 상대로 시위운동을 일으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¹⁾ 이를 배경으로 범민생활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비정치성을 띤, 그리고 표면적인 활동인 신생활운동으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취지문, 결의문, 행동강령 등을 마련하였다.³²⁾ 그러나 개최 당일 전날인 7월 14일 종로경찰서에 압수당하여 무산되었다.³³⁾

26)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3편 44쪽.

27)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3편 54쪽.

28) 성주현, 「일생을 교회와 민족에 바친 정암 이종훈」, 『신인간』, 573, 1998.5, 89쪽.

29) 『천도교대총사장일기』; 「何事被捉」, 『매일신보』, 1910년 9월 3일; 「천도교인 蒙放」, 『매일신보』, 1910년 9월 18일자.

30) 『목암비망록』, 1912년 1월 16일자.

31) 『목암비망록』, 1912년 2월 25일자. 임예환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조사하였는데 60%가 일본에 적대감정이 있다고 했다.

32) 『목암비망록』, 1912년 6월 30일자.

신생활운동을 무산되자 이종훈, 이종일 등과 보성사 직원들은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운동은 천도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불교와 연합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여 한용운, 백용성, 이능화 등 불교계 인사와 접촉하였다. 그렇지만 한용운은 민생안전이 우선적이라고 하여 흔쾌히 참여할 것을 거절하였다. 이에 이종훈 등은 천도교 단독으로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³⁴⁾ 그 결과 1912년 10월 31일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본부를 보성사에 두었다. 그리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총재 손병희
- 회장 이종일
- 부회장 김홍규
- 제1분과위원장 권동진
- 제2분과위원장 오세창
- 제3분과위원장 이종훈³⁵⁾

그밖에 보성사 직원이었던 장효근, 신영구와 훗날 민족대표로 서명하였던 임예환, 박준승 등이 적극 참여하였다. 민족문화수호운동은 일전의 신생활운동이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밀결사의 형태로 천도교단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만주에서 이상룡 등이 조직한 부민단과 같이 발전시킬 계획이었다.³⁶⁾ 이에 따라 지방에서 올라온 교인들을 설득하는 한편 지방조직을 강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³⁷⁾ 그러나 비밀결사 신민회가 발각되는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지방조직은 뜻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는 민족문화수호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천도교인을 대상으로 강연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차적으로 1913년 5월 7일 보성사에서 이종일을 강사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³⁸⁾ 이어 1914년 4월 29일 교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족문화수호의 의의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는 이종훈이었는데, 강연 도중 한국인 형사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종훈은 앞으로 이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풀려났다.³⁹⁾ 이후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는 표면적인 활동을 없애고 철저하게 비밀결사로 활동하였다.⁴⁰⁾

1914년 8월 들어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천도교단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독립의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비밀결사로 천도구국단을 조직하였다. 천도구국단의 중추적 역할은 민중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⁴¹⁾ 이종훈은 천도구국단의 임원으로는 선임되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여전히 참여하였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1916년 2월 들어 국제정세를 교환하는 자리에 이종훈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연

33) 『독암비망록』, 1912년 7월 14일자.

34) 『독암비망록』, 1912년 10월 14일자.

35) 『독암비망록』, 1912년 10월 31일자.

36) 『독암비망록』, 1912년 11월 27일자.

37) 『독암비망록』, 1913년 4월 6일자.

38) 『독암비망록』, 1913년 5월 7일자.

39) 『독암비망록』, 1914년 4월 29일자.

40) 독암비망록에 의하면, 이종훈 강연 이후 표면적인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1915년 6월 22일자에는 천도구국단과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에 대해 각각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밀리에 조직이 유지되었다고 본다.

41) 『독암비망록』, 1914년 8월 23일자 및 31일자.

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구정객을 만나는 등 실제적으로 활동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1916년 2월 20일 이종훈, 이종일, 장효근, 김홍규, 박준승 등은 국제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당시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이종일-필자주) “지금 전쟁도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으며, 우리가 지금 일본의 패전만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대로 방관 상태로만 있을 수는 없으니 원로급 인사들을 찾아가 우리 민중운동의 선봉이 되어 달라고 청원하면 어떻겠소.” 하니, 이종훈 동덕이 “좋은 의견이오. 조희연, 고영희 등 구정객들이 작년 금년 초에 계속 작고하니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을 써서 우리 민족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옆에 있던 김홍규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원로들과 접촉함이 어떻겠소. 나는 한규설 어른을 찾아가 협의해 볼 것이오.”⁴²⁾

이종일이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구 정객을 앞세워 민중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자, 이종훈이 적극 찬성하였다. 함께 있던 김홍규도 한규설을 접촉하겠다는 동의에 이종훈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상재를 만나 민중운동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신영구는 윤용구, 장효근은 김윤식, 흥병기는 박영효, 이종일은 남정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⁴³⁾ 이종훈은 이상재를 만난 결과 “천도교측에서 나선다면 나는 기독교들을 동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⁴⁴⁾ 이종훈을 비롯하여 이종일, 김홍규 등은 천도교의 단독적인 민중운동보다는 각 세력 모두가 참여하는 ‘민족연합전선’을 민중운동의 방략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연합전선의 인식은 3.1운동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3.1운동에 앞서 천도교단은 구정객 및 친일인물들의 동참과 기독교, 불교를 비롯하여 전민족의 참여하는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준비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3.1운동은 이미 1916년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다.

민중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종일은 김홍규와 함께 손병희를 찾아가 민중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간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손병희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고, 민중운동을 이종훈을 비롯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민중운동은 이종훈, 이종일, 권동진, 오세창, 최린 그리고 천도구국단을 중심으로 준비되었다.⁴⁵⁾ 그리고 천도교 내에서 나용환, 김완규, 양한묵 등 동지를 획득해 나갔다.⁴⁶⁾

1918년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원칙 14개조를 공식화하는 한편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체코, 유고, 폴란드 등이 민족자주권을 선언하자 다시 민중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⁴⁷⁾ 이에 1918년 5월 5일 손병희, 이종훈, 권동진, 오세창, 최린 그리고 이종일 등은 모임을 갖고 민중운동을 3대 원칙 즉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에 의해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3대 원칙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이 이미 독립을 선언한 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한 것이다. 여기서 3대 원칙 즉 대중화는 각계각층의 민중을 동원하는 것, 일원화는 여러 계층의 독립운동 계획을 하나로 대동 통합하는 것, 비폭력화는 동화혁명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

42) 『목암비망록』 1916년 2월 20일자.

43) 그밖에 한규설은 “지금은 때가 좋지 않고 건강도 나쁘다”고 하였고, 윤용구는 몸을 사렸다. 박영효는 조용히 지내고 싶다, 남정철은 건강이 좋지 못해 사양하겠다고 하였다.

44) 『목암비망록』 1916년 3월 3일자.

45) 『목암비망록』 1917년 5월 15일자.

46) 『목암비망록』 1917년 6월 1일자.

47) 『목암비망록』 1918년 1월 27일자; 1918년 2월 28일자; 1918년 5월 6일자.

한 방법이였다.⁴⁸⁾ 민중운동의 방법이 정해지자 '무오독립시위운동'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거사일을 9월 9일로 정하였다. 이는 이해 8월 초 일본 본토에서 '쌀 소동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이를 수습하는데 신경을 쓸 때 시위운동을 전개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보다 구체적으로 시위운동의 준비로 독립선언서를 이종일과 최남선에게 각각 작성케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최남선의 독립선언서를 선정하였다.⁴⁹⁾ 그러나 이 무오독립시위운동은 뜻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첫째는 최남선의 독립선언서가 완성되지 못하였고, 둘째는 원료교섭 지연과 자금부족, 셋째는 민중동원의 미성숙 때문이었다.⁵⁰⁾ 이와 같은 시기에 만주에서도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종일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위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에 앞으로 전개할 민중시위는 앞서 결정한 3대원칙을 재확인하였다.⁵¹⁾

1919년 1월 22일 고종이 승하하자 이종일은 민중시위의 만세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최적기로 보았다. 고종의 죽음이 일제의 독살설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반일감정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외적으로는 러시아혁명의 성공과 민족자결주의원칙 등으로 약소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기운이 확산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외적으로 민중시위를 하기에 적절한 때를 맞아 천도교는 만세시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앞서 계획하였던 구 관료의 접촉, 기독교계와 불교계 그리고 학생계와의 연합전선 형성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손병희의 최측근이었던 이종훈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연합전선으로 만세운동이 한창 무르익던 2월 20일 권동진의 집에서 민족대표로 천도교 15인, 기독교 15인, 불교 2인 등 32명으로 하자고 결정하였다.⁵²⁾ 천도교는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 동안 민족대표 15인을 선정하였는데, 손병희를 비롯하여 이종훈, 홍병기, 권동진, 오세창, 최린, 박준승, 이종일, 김완규, 홍기조, 나용환, 나인협, 임예환, 양한묵, 권병덕 등 15명이 민족대표로 선정되었다. 이종훈은 장로로서 민족대표에 선정되었다. 신문과정에서 이종훈은 오세창과 권동진의 권유로 민족대표에 참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목암비망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종훈은 민족문화수호운동과 천도구국단 결성시기부터 이미 3.1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월 28일 손병희의 집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다.⁵³⁾ 3월 1일 오후 두 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28인과 함께 일경에 피체되었다.

민족대표로 3.1운동에 참여한 이종훈은 일제의 신문과정에서도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밝혔다. 신문과정의 주요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 : 본일(3월 1일-필자주) 회합한 목적은 무엇인가.

답 : 조선을 독립할 목적이기 때문에 나도 찬성하고 회합하였다.

문 : 독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조선민족이 자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독립하려고 하였다.

48) 『목암비망록』 1918년 5월 6일자; 『목암비망록』 1913년 4월 9일자.

49) 『목암비망록』 1918년 9월 2일자.

50) 『목암비망록』 1918년 11월 10일자.

51) 최린, 「자서전」, 『한국사상』 4, 1962, 164쪽; 『목암비망록』 1918년 12월 15일자.

52) 『권동진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국사편찬위원회, 142쪽. 후에 기독교에서 1명이 추가되어 민족대표가 33인이 되었다.

53) 『목암비망록』 1919년 2월 28일자.

문 : 피고는 어째서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가.

답 : 그것은 조선민족으로써의 자주독립운동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 : 피고는 급후에도 또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답 : 그렇다. 선생(손병희-필자주)이 그 계획을 계속한다면 가입할 생각이다.⁵⁴⁾

문 : 피고는 조선독립에 대하여 갈망하고 일한합방을 극히 반대하였나.

답 : 조선의 민족으로서 어찌 그 맘이 없겠소.⁵⁵⁾

이종훈은 3월 1일 태화관에 모임 목적은 '조선독립'임을, 독립의 목적은 '조선 민족의 자유를 찾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조선독립만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앞으로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종훈이 3.1운동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제의 식민통치에 불만이 없다'라든가 '독립청원을 계획하였다'라는 답변은 애매모호한 점도 없지 않다. 좀더 당당하게 밝혔으면 하는 심정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답변이 아닌가 한다. 이종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종일과 함께 민중운동을 준비하였으며, 더욱이 동학혁명에 참전하였던 경험으로 볼 때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무장투쟁을 목적으로 조직된 고려혁명당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민족대표로서의 이종훈의 행동이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이종훈은 경성지방법원의 3차례 신문과 고등법원의 신문을 거친 이종훈은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의 옥중생활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지만 함께 3.1운동을 준비하였던 이종일은 "쫄쫄한 모습을 보여주어 더욱 마음이 든든"하다고 평가하였다.⁵⁶⁾ 이러한 그의 모습은 동학의 민족주체사상을 기반으로 동학혁명,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던 민족문화수호운동과 천도구국단의 활동 등 꾸준히 민족운동을 삶의 실천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천도교 혁신운동과 비밀결사 참여

3.1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 9개월간 옥중생활을 마친 이종훈은 1921년 11월 4일 출옥하였다.⁵⁷⁾ 그가 출옥하자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인 박인호를 비롯한 주요인물들이 원동 자택으로 찾아와 위로를 하였는데, 이종훈은 "나는 2년의 징역을 살았다 하여도 그동안 9달이나 병감에 누웠었고 오늘도 병감에서 나왔으니 아무런 징역의 참맛은 알지 못하였소. 거저 한울님의 은혜와 선생의 덕택으로 죽은 몸이 살아나온 것만 다행이오"라고 평온한 마음으로 소회를 밝혔다.⁵⁸⁾ 이는 그가 민족대표 33인중 최고령자로서 건강상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하더라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3.1운동 이후 이종훈은 천도교 개혁과 비밀결사에 참여하였다. 천도교단은 3.1운동으로 손병희, 최린, 이종훈 등 대부분의 교단지도부가 일경에 피체됨에 따라 신진 지도부가 대체하였다. 이들 그룹은 주로 청년들로 당시 문화운동을 주도하였다. 3년 동안 원로 지

54) 「이종훈 심문조서」;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375-386쪽.

55) 『동아일보』, 1920년 9월 22일자.

56) 『목암비망록』, 1919년 3월 7일자.

57) 「제씨 출옥」, 『천도교회월보』, 135, 1921.11, 109쪽. 이날 홍병기, 니용환, 나인협, 박준승, 임예환, 홍기조, 권병덕, 김완규 등과 함께 출옥했다.

58) 『동아일보』, 1921년 11월 5일자.

도자의 공백으로 교단은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갈등이 내재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단의 개혁운동이 오지영, 최동희 등을 중심으로 교단의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⁵⁹⁾ 이들을 흔히 '혁신세력'이라고 한다.

3년 만에 옥고를 마친 후 민족대표로 참여하였던 원로지도자들이 교단으로 복귀하자 이들 대부분은 혁신세력을 지지하였다. 이종훈 등 원로그룹이 혁신세력에 참여한 것은 자신이 포함한 원로그룹들이 교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당시 교단을 이끌고 있던 정광조는 원로그룹들을 경원시하였고 소홀하게 대하는 것에 불만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혁신세력으로서 원로그룹들의 지원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정광조 중심의 교단은 원로그룹으로 교체되었다. 이때 이종훈은 1922년 1월 17일자로 종법원 종법사 겸 경기도 교구순회 책임자로 선임되었다.⁶⁰⁾ 그렇지만 교단은 여전히 보혁 갈등으로 대립하였고, 더욱이 1922년 4월 신병으로 가출옥 중이던 손병희가 구관제의 부활을 선언함에 따라 보혁 갈등은 첨예화되었다. 이에 교단은 손병희의 뜻에 따라 구관제를 부활하였고, 그동안 혁신세력을 지지하였던 대부분의 원로그룹들도 보수세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종훈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혁신세력과 함께 하였다. 이로 인해 이종훈은 불온한 문서를 배포하여 교단의 체면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홍병기, 오지영, 정계완 등과 함께 1922년 5월 12일자로 교적에서 제명되었다.⁶¹⁾ 그러나 1월 후인 6월 13일 제명을 취소함에 따라 교적은 다시 회복되었다.⁶²⁾

이러한 와중에 손병희의 죽음과 교단의 책임자 박인호의 사임으로 교단은 통합을 모색하였다. 보혁 양측은 교인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종훈은 개혁세력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다.⁶³⁾ 그러나 양측의 교섭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혁신세력은 1922년 12월 말경 천도교연합회를 조직하여 별립하였다.⁶⁴⁾ 그러나 혁신세력을 지지하였던 이종훈은 천도교연합회에 참여하지 않고 천도교단에 합류하였다. 이는 그가 교단의 개혁운동을 지지하거나 주도하였지만 교단을 별립하는 데까지는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와 함께 활동하였던 홍병기, 또한 손병희와의 인척 관계 등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홍병기는 여주 출신으로 동학혁명을 비롯하여 갑신개화운동, 3.1운동 등으로 생사를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이종훈의 장남과 손병희의 장녀의 결혼으로 사돈관계였고, 또한 정광조 역시 손병희의 사위로서 인척 관계에 포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그가 천도교와 별립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종훈은 혁신세력이 별립한 천도교연합회와 결별한 후 천도교단의 화합을 위해 '평화경고식'을 주도하였다.⁶⁵⁾ 평화경고식은 그동안 보혁 갈등에서 중립적 또는 혁신세력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로써 3.1운동 직후 전개되었던 교단혁신운동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또한 이종훈 역시 교단혁신운동을 주도하였지만 결국 보수세력의 천도교단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이종훈은 장로로 활동하였던 원로지도자의 예우와 교리강구 및 교무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강도사에 선임되었다.⁶⁶⁾ 이어서 이종훈은 1923년 5월 28일부터 7월 22

59) 이에 대해서는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 『천도교의 민족운동연구』, 선인, 2007, 167-219쪽 참조.

60) 『천도교회월보』 138, 1922.2, 95-96쪽.

61) 『천도교회월보』 141, 1922.5, 104쪽.

62) 『천도교회월보』 142,, 1922.7, 98쪽.

63)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 185쪽.

64) 「天道教ノ内訌ニ關スル件」,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총서』 4, 고려서림(영인), 1992, 53쪽.

65) 『천도교회월보』 151, 1923.4, 72-73쪽.

일까지 2개월여 간 원산 등 북선 일대와 북간도 용정, 국자가, 두도구, 동불사 등지를 순회하면서 교무를 시찰하였다.⁶⁷⁾ 또한 교단의 갈등의 봉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계(敬啓)를 발표할 때 원로교인으로 참여하였다.⁶⁸⁾

한편 이종훈은 혁신운동에 참여하는 동안 혁신세력이 전개하였던 비밀결사에 참여하였다. 혁신세력의 핵심인물 중의 한 명인 최동희(崔東羲)는 3.1운동 이후 천도교의 민족운동론으로 무장투쟁을 적극 주장하였지만 일제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교단을 이끌던 정광조는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최동희가 무장투쟁론을 주장하였던 것은 동학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일제의 식민지 체제에서 민족해방을 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최동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20년 8월 21일 최완(崔浣),⁶⁹⁾ 이근호(李根鎬)와 함께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협의하였다.⁷⁰⁾ 이는 사전에 발각되어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최동희는 여전히 무장투쟁론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최동희는 천도교 혁신운동을 주도하면서 1922년 7월 14일 비밀결사로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⁷¹⁾ 이때 이종훈은 고려혁명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고려혁명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이종훈

위원장 홍병기

부위원장 최동희

비서 송헌

외교부장 최동희(겸직)

해외조직부장 이동락

해외선전부장 김광희

해내조직부장 이동구

해내선전부장 김봉국

재정부장 박봉운

위원 김치보, 강창선, 김홍중, 강도희, 김문벽, 이동욱, 강명혁, 김병식, 손두성⁷²⁾

고려혁명위원회는 1924년 4월 5일 천도교최고비상혁명위원회로 재조직될 때 이종훈은 사성위원장을 맡았다.⁷³⁾ 특히 고려혁명위원회에 참여하였던 대부분 천도교의 혁신운동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었다. 고려혁명위원회 구성원 중 최동희, 김광희, 김홍중, 강도희, 이동락 등은 민족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만주와 연해주로 건너가 활동하였다. 이종훈도 그

66) 『천도교회월보』 152, 1923.8, 26쪽. 이종훈 외에 홍병기, 권동진, 나용환, 오영창, 오세창 등이 강도사로 선임되었다.

67) 『천도교회월보』 155, 1923.11, 63-64쪽.

68) 『천도교회월보』 155, 1923.11, 64-69쪽. 이 경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吾敎運과 世界大勢가 暗暗리에 符合되는 것, 둘째 先師의 性靈出世에 대한 吾敎의 勢力, 셋째, 吾敎人의 心法과 處地가 世運과 同歸함, 넷째 吾敎의 現下 敎體가 天理에 符合되는 것.

69) 최완은 만주에서 대한민회 대표, 북로군정서 및 대한독립군단사령부에서 활동한 바 있다.

70) 『高等警察要史』, 慶北警察部, 1934, 200쪽.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만주에 중립국을 건설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할 것. 만주지방은 토지가 광막하고 가격이 싸서 1日耕을 약 50원에 매입할 수 있으므로 1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후 그곳에 이민을 장려하여 5천여 호의 대조선인 마을을 건설한다. 학교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병영을 건설하여 동지를 훈련하고 실력을 양성하여 중립국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일본과 개전을 준비할 것, 2. 러시아와 격과와 결탁하여 무력침입을 할 것, 3. 조선인 관리를 매수할 것.

71)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위원회, 1956, 234쪽.

72)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위원회, 1956, 234쪽

73) 鄭愚堂이 片山潛에게 보낸 편지(1924.6.15., 블라디보스토크);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 203쪽 재인용. 천도교최고비상혁명위원회의 임원은 집행위원장 홍병기, 부위원장 나용환, 내무위원장 윤익선, 외무위원장 최동희, 재무위원장 김진팔, 선전위원장 정계완 등이다.

의 약력에 의하면 “출옥한 후 중국 포덕에 뜻을 두고 수차 북간도 용정에 가서 포교에 노력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려혁명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려 해석할 수 있다. 이종훈은 비록 고령이지만 고려혁명위원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교라는 명목으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종훈은 국내에 있을 때는 정양을 하기도 하였다.⁷⁴⁾ 노구를 이끌고 만주에서 활동하던 이종훈은 귀국한 지 1개월 만인 1931년 5월 2일 76세를 일기로 환원⁷⁵⁾하였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이종훈의 생애와 그의 민족운동을 통시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종훈은 한말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하여 흥병기와 함께 3.1운동 민족대표의 참여하였던 독립운동가였다. 그의 생애에 대해 함께 활동하였던 이종린은 “선생은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공궁진체(鞠躬盡瘁)하였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일생을 천도교와 민족운동에 매진한 이종훈의 생애와 민족운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종훈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에서 태어나 한학을 배우면서 유교적 교양을 쌓았으나 오히려 상업에 종사할 정도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흔히 유교에서는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좋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종훈은 철점을 경영하였고, 기회를 통해 관계로 나가고자 하였다. 그가 상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정부에서 금압하였던 동학에 입도한 것 역시 열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둘째, 동학에 입도한 후 사회변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종훈은 한때 관계로 진출을 시도하였지만 당시 부패한 사회를 체험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변혁사상에 관심을 가졌다. 마침 동학교단이 지하신앙운동에서 한 단계 발전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교조신원운동은 동학교단이 사회변혁운동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회변혁을 꿈꾸던 이종훈은 반봉건과 반외세를 기치로 한 동학의 사회변혁운동을 목도하고 1893년 1월 17일 동학에 입도하였다. 곧 바로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 광주지역 교인들을 이끌고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학혁명 당시에는 손병희의 중군장으로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여하였다.

셋째, 이종훈은 일제강점에 저항하여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일제강점 이후 천도교에 조직된 비밀결사인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와 천도구국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민중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는 동학혁명을 통해 경험하였던 민중운동의 재현하고자 한 그의 의지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중운동의 결과로 3.1운동이 일어났고, 민족대표로 흔쾌히 서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출옥 후에도 고려혁명위원회와 천도교최고비상혁명위원회에 참여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종훈은 천도교 혁신에 앞장섰다. 그는 천도교인으로써 3.1운동 이후 전개된 교단의 혁신운동에 참여하였다. 보혁 갈등에서 혁신운동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 천도교연합회로 별립하였지만 이종훈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평생 동지였던 흥병기, 그리고 생사를 같이 하였던 손병희와의 관계가 천도교에 남게 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74) 『신인간』 20, 1928.1, 56쪽.

75) 환원(還元)이라는 말은 천도교에서 교인들이 죽었을 때 쓰는 용어이다.